

“농업 패러다임 바꾸고 생태관광 육성... 잘사는 곡성 만들 것”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유근기 곡성군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20대 청년은 민주당 곡성지부 선전부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꼬박 28년이 지나 바라던 군수직에 앉았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곡성에서 나온 유근기(51) 곡성군수는 평생 고향을 지킨 '의리'와 스스로 없애 다가서는 '친근함'을 무기로 현직 군수를 꺾고 민선 6기 4년간 곡성을 이끌게 됐다.

그는 '애민관(愛民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잘못을 보지 않고 지금 곡성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그들의 행복에 일조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아이러니하지만 지난 2006년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난 뒤 군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낙심하기보다는 더 큰 꿈에 도전하자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4년 뒤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군수가 됐으면 합니다.”

취임하고 군수실에 들어선 유근수는 모든 집기를 그대로 두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담은 액자 2개를 걸었다. 하나는 관청이 맑아야 백성이 편안하다는 의미의 '관청민안(官淸民安)', 또 다른 하나는 '최선(最善)'이다. 모두 친구들이 취임 선물로 선사한 것이다. 군민과 소통하고 자신의 물가집을 깨끗이 하며 곡성을 위해 헌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자신의 물 모델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꼽았다. 손학규가 지난 2007년 펴낸 '대한민국, 손학규를 발견하다'라는 책을 읽으며 가시 없는 정치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유근수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함'이라고 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청사를 나가면서 그는 마주친 청소 아주머니의 두 손을 마주잡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후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를 가면서 마중 나온 직원들에게도 “나를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약속하고 돌려보냈다. “곡성에서 나고 자라 웬만하면 모두 다 아는 분들”이라는 게 유근수의 설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식 전에 복지시설을 찾았다는데.

▲먼저 관내 복지시설인 삼강원을 찾아 장애아동들의 아침 식사를 돕고, 곡성을 묘전리에 있는 충의탑을 찾아 참배한 뒤 군민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모든 군민과 함께하겠다는 군수로서의 자세를 실천하고자 했다. 점심도 각 읍·면 노인회장과 먹었다. 장애아동, 그리고 노인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고 싶다.

- 민선 6기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역별 미래 지향적인 농산품목의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자연생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겠다. 또 소외됨이 없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 작지만 내실있는 강한 지자체를 만들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가공·유통에 나서고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올해 내에 '오메가 3 딸기' 출시를 시작으로 곡성에서만 생산되는 기능성 과일, 야채 등이 쏟아져 나오리라 자신한다.

- 6·4 지방선거에서 현직 군수와 맞붙어 상당한 격차로 이겼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해법을 제시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곡성군민의 '명령'을 가슴속 깊이 들었다. '소통하라', '화합하라', '지긋지긋한 가난과 낙후의 고리를 끊어라'는 것이 그것이다.

군민께서 이 3가지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귀중한 표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



유근기 군수 프로필

▲1962년 곡성 출생 ▲전남 과학대학교 지리정보토목과 졸업 ▲7, 9대 전남도의회 의원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 회장 ▲곡성군 라이온스클럽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서 이번 군수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곡성 군민이다.

- 버스 완전 공영제 공약이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무상 근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근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노후한 근내 버스는 모두 교체될 것이고 노선은 정비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작은 나눔 복지를 통해 미소가 넘치는 행복한 곡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자연생태 관광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자연생태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해 나가겠다. '섬진강 동화마을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 줄

반목과 불화를 끝내고 곡성이 하나 되는 화해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서로에게 주고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군정 구호는 이런 바람도 함께 담아 선정한 문구다.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충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를 위해 매달 두 번 군수실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한 번은 공직자들에게, 한 번은 군민들에게 개방하겠다. 단 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 어떤 군수로 평가받기를 바라나.

▲취임 전과 후가 변함없는 군수, 공부하고 배우는 군수, 중앙정부나 기업체를 제집처럼 드

근내버스 완전공영제 단계적으로 실시 '네 편' '내 편' 없는 화합의 군정 펼칠 것

어떤 군수로 평가받고 싶나

- 취임 전과 후가 변함없는 군수
- 중앙정부·기업체 제집처럼 드나드는 군수
- 모네기하고 새삼 함께먹는 군수
- 공직자들 능력 일깨워주는 군수



거울이 넘치는 체면의 장을 곡성에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섬진강 주변 개발은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시설물이 제한되고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더 아름답게'라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섬진강 주변 관광개발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겠다. 특정 계열에 집중되지 않는 사계절 가족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민선 6기 곡성군의 비전은.

▲민선 6기 군정 구호는 '함께해요! 희망 곡성'이다. 이 구호 아래 미래농업 소득안정, 자연관광 상생경제, 소외 없는 나눔복지, 상호존중 군민화합, 군민참여 열린 행정 등 5개를 군정 운영 방침으로 정했다.

여기에 5대 실천방침인 친환경 명품 농림업 육성으로 고른 소득 증대,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생태관광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하는 소외 없는 나눔 복지 실현,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이 넘치는 일지 단결 화합 곡성, 군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행정으로 투명 군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 군수가 바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논란이 없다.

▲곡성에 더는 '네 편', '내 편'은 없다. 대화로

나드는 군수, 향우들의 경험을 군정자선으로 만드는 군수, 모네기하고 새삼 함께 먹는 군수, 부모님 걱정 지시 걱정하는 군수, 공직자들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군수, 시민사회와 항상 함께하는 군수, 다문화가정의 친구 같은 군수가 되고 싶다.

- 곡성군 직원들과의 소통 방안이 있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틀 안에 가두고 '복지부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군수는 지원하겠다.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무한 책임은 군수가 지겠다. 군수는 책임지는 자리이며,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신 염려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모두 한 곳에 담아 곡성군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의 축으로 삼겠다. 곡성에서 나서 평생 함께할 사람으로 잘 사는 고향을 만들고 자 하는 마음은 군민 여러분과 똑같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발전 청사진은

권역별 미래지향적 농산품목 개발
자연생태 관광산업 집중 육성
소외없는 나눔복지 실현

농업 패러다임 바꾸기 어떻게

생산 이의 공동체 중심 가공·유통
올해 '오메가 3 딸기' 출시 시작으로
기능성 과일·야채 쏟아져 나올 것

자연생태 관광산업 육성 어떻게

섬진강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동화마을 프로젝트' 등 구상
사계절 가족체류형 테마파크 조성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천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 062 227-9600 | 신문구독 _ 062 220-0551 | 예향구독 _ 062 220-0550